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7. 12. 21.(목) / 총 2매(본문2, 붙임0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이상일, 사무관 김민정, 주무관 장혜란</li> <li>• ☎ (044) 201-3993, 3998, 4003</li> </ul>
	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공두표, 사무관 이희연</li> <li>• ☎ (044) 200-5750, 5766</li> </ul>
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서기웅, 사무관 정병찬</li> <li>• ☎ (044) 201-4380, 4382</li> </ul>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미국,중국,인도,베트남···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 물류기업!

### 12.22(금) 물류·화주기업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춘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오는 12월 22일(금) 두 부처가 공동 추진 중인 물류·화주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「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」를 개최한다.

○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·화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사전 현지 시장 조사, 진출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50%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. 불확실성이 큰 해외진출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.

□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2017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8개 컨소시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컨소시엄\*이 지난 일년 간의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발표한다.

\* 톨스피아·포맨해운항공(중국), 승산산업·삼영익스프레스(폴란드), 경인양행·CJ 대한통운(인도,베트남,싱가폴), 제너럴브랜즈·일양익스프레스(미국)

- 특히 CJ대한통운·경인양행은 인도, 베트남, 싱가포르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허브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물류 효율화를 꾀하였다. 이를 통해 수출입 리드 타임을 4~13일 가량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으며,
  - 삼영익스프레스·승산산업은 폴란드로 진출하여 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뿐 아니라 물류비용을 5~10% 가량 절감시켰다.
  - 이렇게 각 컨소시엄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나간 과정, 달성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도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.
- 참가 문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\* 및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담당자\*\*에게 문의하면 된다.

\* (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) [www.korcham.net](http://www.korcham.net)

\*\* (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 연락처) 02-6050-1443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가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민정 사무관(☎ 044-201-39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